

초청강연 |

| 일시 2022년 10월 20일(목) 16:10~16:45 | 장소 컨벤션홀 II+III (3F)



최연혜

전) 국회의원 (20대)
전) '탈원전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본부' 공동대표
전) '국회 원전수출포럼' 대표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전) 한국철도대학 총장

국민 사랑 속에 원전 르네상스 꽃피우기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탄소중립 이슈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환경이 격변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에서 LNG수요가 폭발하고 우리나라에서 당장 올 겨울 전력 대란이 예고되는 등 세계 각국은 새삼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주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체감하는 중이다.

에너지 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가 그간 국가지도자들의 해안과 온 국민의 피땀어린 지원 속에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축적하여 에너지 자립화에 기여하고 원전 수출에 나서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여겨진다. 지금 전 세계가 원전으로 크게 선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 원전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더욱이 원전 수출과 SMR 등 차세대기술을 적극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업계는 두 날개를 달게 되었다. 이제 원전산업이 르네상스를 꽃피워 대한민국의 번영과 지구환경보호의 견인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얻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실 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전 산업이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영향도 컸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이 어려운 지식·기술과 씨름하며 상아탑 안에 침잠한 동안, 소위 탈원전 운동가들은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연대하여 '원전은 위험하다'는 도그마를 만들고 공포를 조성하며, 해바라기, 바람개비 같은 동심을 깨우는 소구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탈원전 반대 운동 과정에서 원전 업계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징검다리를 놓았다. 현대의 과학기술로 원전의 안전성은 관리가능하다는 게 팩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원전을 반대하는 심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원전 전문가들은 안전에 관한 한 국민들의 작은 우려까지도 허투루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세계원전안전기술연구기금'을 창설해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원전의 안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한다면 원전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국형 원전의 세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 일등 원전 보유국인 우리나라가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전 세계적 동참을 이끌어 나갈 일이다.

온 국민의 사랑 속에 전 세계에 '안전하고 깨끗한 K-원전'의 열풍이 불기를 기대해 본다.

